

#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의 배경, 강의 12, 종족 그룹, 후르리안, 히타이트, 하비루

©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12부 종족, 후리족, 헷족, 하비루족입니다.

나는 고대 근동을 통한 나의 마지막 여행이 짧은 여행이었고 우리는 흐린 날 약 40,000피트 상공에서 학문의 세계를 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고대 근동 자료를 오용함으로써 성경 본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고 성경이 증명되기를 원하는 우리들 역시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살 권리가 있고, 성경을 위해 논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우리는 고고학이 성경의 친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은 수천 년, 수세기에 걸쳐 성경을 오용해 온 내용입니다. 마치 성경의 목적이 믿기 전에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를 방금 했기 때문에 방주를 찾아 방주의 움푹 들어간 곳으로 들어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면, 방주를 찾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카드어로 쓰여진 노아의 메시지와 노아가 우리에게 말한 메시지에서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실제로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고학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몇 년 전 저는 젊은 교수로 앉아 그레이스 대학에서 에드 야마우치(Ed Yamauchi)의 일련의 강의를 듣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으며 그가 오늘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야마우치는 이 발언에서 고고학의 한계를 설득력 있게 지적했다.

첫째, 고고학적 증거 중 극히 일부만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둘째, 가능한 사이트 중 일부만 감지되었습니다. 셋째, 발견된 유적지 중 일부만 발굴되었습니다.

넷째, 고대 유적지 중 일부만 발굴되었습니다. 다섯째, 발굴된 것 중 일부만이 철저하게 조사되어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되고 출판된 것 중 극히 일부만이 성경 연구에 기여합니다.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고고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종의 낭만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학교의 젊은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 고고학이 성경을 입증했다는 말을 들었던 청년 시절을 기억합니다.

글쎄요, 고고학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이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성을 부여했지만 적어도 내 평가에서는 그것을 거의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 고고학을 성경의 시녀로 축소하고 있는 그대로 증명하려는 것은 고고학적 증거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맥락에서 벗어나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여기서 위치를 조금 옮겨서 출애굽기부터 사사기까지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가 대략 1620년쯤에 끝났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0년이 지나서야 다음 대제국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들 제국 중 가장 위대한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메소포타미아가 실제로 초강대국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 바빌로니아 시대가 끝나면 바빌론에 카시트족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지도의 무대를 빠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어떤 왕조보다 바빌론을 더 오랫동안 통치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무너지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카시트 산악 지역에서 자그로스 산악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그들은 카시트(Kassites)라고 불리며 수세기 동안 바빌론을 통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별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카사이트로 쓰여진 서판이 거의 없으며, 카시트 시대 바빌론의 역사를 쉽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분지 전체를 통치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Hurrians라고 불리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는 Hurrites라고 부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후르리아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북쪽 끝에서 그들의 고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이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의 원주민이 아닙니다. Kassites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셈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도유럽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빠르면 2200년에 기록에 처음 등장했지만 아마도 24~2200년에 메소포타미아 상부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는 그들은 널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리(Mari)에서 처음으로 종족 그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1635년에 그들은 남부 아나톨리아를 공격합니다. 1480년까지 그들은 신약 카파도키아 지역에 있는 키즈 주왓나(Kiz zuwatna)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이곳을 Kwe 또는 고전적인 Calicia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약 1600년부터 1400년까지 이 후르리인들은 대왕국 미탄니의 주요 민족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도인 와슈칸니(Washukanni)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주요 왕실 도시입니다. 미탄니는 1370년 히타이트 왕 수필룰리우마의 공격을 받기 전까지 세계 무대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탄니 왕국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지도에 표시했을 때, 여기서는 단지 Hurrites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미탄니 왕국은 수세기 동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상반부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타이트족과 메소포타미아족 사이에 끼어들기 전까지는 주요 세력이었습니다.

미탄니아 제국의 언어는 후르리어(Hurrian)였지만, 흥미롭게도 우리는 그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이 후르리안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력은 이란이나 심지어 인도 어딘가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대규모로 도입함으로써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창세기와 신명기에만 언급되는 성서에 나오는 후르라이트(Hurrites)와 동일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로 이주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널리 분산되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1450년에 미탄니아 왕 사우스타타르는 투트모세 3세에게 패배하여 시리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투트모스 1세 투탕카멘은 그와 조약을 맺었고 북시리아는 미탄니에게 반환되었다. Saustartar와 그의 후계자 Tushratta는 둘 다 자신의 딸을 파라오와 결혼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설정하는 요점은 성경의 출애굽 직전 기간에 출애굽의 초기 날짜를 가정하면 세 가지 큰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쪽에는 이집트, 북부 메소포타미아에는 미탄니, 그리고 오늘날 터키가 될 지역에는 히타이트가 있었습니다. 1370년 이후에는 히타이트인들이 후르리아 왕국을 멸망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두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도를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편리한 지도를 보면 여기 이 지역은 연어색, 보라색, 녹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이 지역은 히타이트 제국이었습니다.

미탄니아 제국은 이렇게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이었고, 이집트 왕국은 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1370년 이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던 후리언 왕국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히타이트 제국뿐입니다.

히타이트족은 흥미로운 종족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소개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속 작업을 원할 경우 귀하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읽기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최신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고 문헌을 따르면 배워야 할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헷 족속을 연구할 때 헷 족속이라는 단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모리 족속이라는 단어에서 보았듯이 그 단어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용어는 히타이트라는 단어가 소 중양 아시아의 원래 주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히타이트라는 단어의 철자나 발음을 다르게 만들어 식별합니다. 우리는 이 원주민을 하티안(Hattians)이라고 부릅니다.

중양 아나톨리아에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은 하틸랜드(Hattiland)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곳은 하틸란드(Hattiland)라고 불렸고, 따라서 기원전 2000년 이전의 이 민족들은 하티족(Hattians)이라고 불렸습니다. Hattians는 실제로 Hittite와 동일한 것이지만 Hittite는 무정형 용어입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기원전 2000년 이전 중양아시아의 주민들은 하티족이었고, 우리가 아는 한 그들은 아주 옛날부터 중양 아나톨리아 지역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2000년경에 두 번째 종족이 이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소중양아시아로 이주한 인도유럽인들이었고, 우리는 그들을 제국 히타이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두 세대 전에는 그들을 네시인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700년경부터 1190년경까지 그들은 고대 근동 지역의 주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사실, 1370년부터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집트인과 히타이트인이 단순히 세계를 그들끼리 나누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족장 시대부터 사사기 중반까지 통치했던 이 그룹이 그러므로 우리가 제국 헷 족속이라고 부르는 시대였습니다. 대략적인 날짜를 알려드리자면, 약 1200년경에 히타이트 제국 왕국이 붕괴되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붕괴되어 말 그대로 붕괴되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좀 더 나은 지도를 찾기 위해 중앙아시아 소왕국의 주민들과 그 남은 사람들이 여기 남쪽으로 이주하여 멀리 북부 시리아에 정착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들을 신히타이트(Neo-Hittites)라고 부르며 구별하는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인 신히타이트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인 해양 인민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잔존자들은 시리아 북부의 타우루스 산맥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신히타이트 도시국가라고 불리는 도시국가 연합을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용어, 즉 히타이트라는 용어의 세 번째 사용에 대한 대략적인 연대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1200년부터 대략 800년까지의 연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1200년은 우리를 사사기의 중간에 두고 다윗과 솔로몬이 죽고 왕국이 북왕국과 북왕국이라는 두 실체로 갈라진 분열된 군주제 시대로 우리를 이끈다. 남부 왕국. 따라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성경 기록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하티아인들은 아브라함보다 앞섰지만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인 제국 히타이트가 사사기 중반까지 족장 시대를 망라했고, 그 다음에는 신히타이트가 사사기 중반부터 분열된 시대까지의 기간을 망라했습니다. 군주제, 군주.

이제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헷 사람이라는 단어를 볼 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단 한 단어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은 하티인, 제국 히타이트인, 신히타이트인을 구별하지 않으며, 나중에 아시리아인이 사용하게 된 히타이트라는 단어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단순히 아시리아 서쪽의 모든 것을 하틸랜드(Hattiland)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히타이트라는 단어를 볼 때 나는 혼란스러운 연대순 가능성의 집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헤브론 지역에서 죽었을 때, 영국 전통에 따르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헤브론이라고 부릅니다.

헤브론은 실제로 헤브론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헤브론은 여기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매장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에 있는 헷 족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매장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헷 사람 에프론에게서 이 매장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헷 사람들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타이트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Hattians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국 히타이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히타이트를 말하는 건가요? 글썄요, 대략적인 날짜를 알려드리기 위해

Sarah가 대략 2000년에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글썄, 당신이 분명히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제국 히타이트가 된 사람들의 이주를 위한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일은 헷 족속 에브론이 말할 때 물음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프론이 어떻게 해서 여기 헤브론까지 내려온

원래 하티아 족 중 하나였는지 아니면 그가 하티아 족의 일부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히타이트 제국 민족의 이주, 또는 이것을

지리적 용어로 언급하는 성경 본문이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시리아의 용어

사용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에브론은 전혀 헷 족속이

아니었지만 창세기 본문에는 그가 서방 사람이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브라함에 이르렀을 때 본문에는 헷 족속 에브론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만약 그가 중앙아시아 소주민이라면 우리는 '히타이트인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이 먼 남쪽 지역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에게 다소

흥미로운 테스트 사례입니다. 헷 사람 에브론이 있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 우리는 그 질문에 실제로

답할 수 없습니다.

구약성서에는 또 다른 헷 족속이 있습니다. 그는 에브론보다 훨씬 더 유명하며 그의 이름은 우리아입니다. 이제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아가 다윗 군대의 헷 족속 용병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다윗은 대략 기원전 1000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기원전 1000년입니다.

따라서 우리아가 기원전 1000년경에 있었던 것을 보면 다윗은 대략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사울이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010년부터 970년까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 있던 사람.

우리아는 1010년보다는 970년에 더 가까웠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아를 중간에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히타이트 사람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썄, 그것은 그가 아마도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원래 Hattians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마도 그가 히타이트 제국 시대 출신이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즉, 그가 신히타이트였을 것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그가 용병이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왜냐하면 히타이트라는 용어를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히타이트 도시국가가 있던 산기슭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대해 인민 운동 이후 세계에서 신히타이트 우리아가 사후 해상 인민 세계 거래를 돕기 위해 용병으로 고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다 민족의 재앙적인 사건 이후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문제로.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알아 둘 가치가 있는 방법론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있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이름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따라서 이 특정한 경우에 헷 사람은 우리아의 경우에 그가 신히타이트 사람이라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의미할 것입니다. 히타이트 제국의 언어인 제국 히타이트는 설형 문자와 상형 문자로 작성된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히타이트 기록 보관소의 대부분은 상형 문자가 아닌 설형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상형문자는 이집트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문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히타이트 언어인 예술적인 문자를 의미합니다.



신유대어 인도유럽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체코슬로바키아 학자인 베드리히 흐로즈니(Bedrich Hrozny)가 하투샤(Hattusha)라고 불리는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를 발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국의 수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서판을 발견했습니다. 내 생각에 모든 고고학자의 목표 중 하나는 수도를 찾고, 궁전을 찾은 다음, 왕실 기록 보관소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Hroszy는 그것을 발견할 만큼 운이 좋았고 히타이트 언어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셈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도유럽어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그것을 해독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매우 중요한 히타이트 서판이 인도-유럽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법률의 기본 영어 번역은 원래 Neufeld가 번역한 히타이트 법률에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Brill이 출판하고 WW Hallo가 편집한 3권짜리 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Hallow가 편집한 The Context of라는 책에서 가장 최근 형태로 영어로 번역된 히타이트 점토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경전. 따라서 어쨌든 독일 학자 흐로지(Hrozny)는 이 히타이트 서판에 고대 근동까지 이 서판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다양한 법칙의 형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Hroszy는 고대 근동 조약 서판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서 발견되는 이 형식에 주목했으며, 이 조약에는 여섯 가지 주요 구성 특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문서에 전문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선행사, 즉 두 세력 간의 조약을 확인함으로써, 두 세력의 관점에서 나열한 선행사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셋째, 두 조약 참가자의 향후 관계에 관한 실질 진술이 있었다.

넷째,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관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다섯째, 조약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문서였기 때문에 조약의 증인으로서 신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주와 축복이 있었고, 두 참가자가 조약에 충실하면 축복이 있었고, 둘 중 하나가 충성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 관찰은 신명기처럼 동일한 일반 개념이 지배된다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움이 되는 작품 중 하나는 독일 학자 Klaus Balzer의 작품입니다.

그는 원래 이 문서를 독일어로 출판했지만 지금은 영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절판되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입니다. 언약서식.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도 서문, 역사적 서문, 기본 선언, 보다 상세한 조건, 가신의 공식 승인 등 동일한 대략적인 형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를 여호수아 24장에 적용하면 조약 형식이라고 부르는 동일한 대략적인 목록이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볼 수 있고, 신명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에도 이와 동일한 형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위대한 장로교 학자는 신명기에서 이와 동일한 조약 형식을 인식하고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물론 지금은 꽤 시대에 뒤떨어진 대왕 조약(Treaty of the Great King)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클라인은 히타이트 조약에서 인정된 동일한 조약 형식이 신명기의 기록 방식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청중에게 여기에 복사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은 조약을 맺는 일반적인 방법이 고대 세계 전체에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산은 사실상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약이 있는 곳마다 대략적인 형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고대 근동 민족들이 공통 조약 형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형식은 세계가 새로운 황금 시대, 즉 비옥한 초승달 지대 전역에서 다음과 같은 외교 관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집트와의 조약 관계. 따라서 책으로서의 신명기는 동일한 조약 형식을 따르는 일반적인 개요를 가진 문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명기에는 대왕 야벳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조약이 맺혀 있습니다. 야벳과 공식적으로 조약을 맺은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일반적으로 이와 동일한 형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히타이트 제국이 1200년에 끝났고 모세가 1400년에 그의 문서를 썼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날짜를 비판적 이론이 아니라 모세가 초기에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글을 썼다면 늦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모세의 초기 날짜를 증명하기 위해 그 날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보여드린 조약 형식은 꽤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현상에 기초하여 모세의 초기 연대를 논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여호와와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타이트 문서는 우리가 국제 조약에서 가장 빠른 정점을 찍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종족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하비루(Habiru)에 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실에서 가르치면서 이것이 제 학생들이 마스터하기 가장 어려운 과목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심지어 히브리어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물론 히브리어를 배운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빨리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청중들에게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없는 성경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친구들이여, Zondervan 같은 곳에 가서 히브리어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를 구입할 수 있고, 집에서 바로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거실. 그리고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사용하여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는 살아 있을 때 원어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비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그렇다면 히브리인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4장 13절에 한 도망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니 곧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우리는 왜 아브람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나요? 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방식을 칠판에 적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구약이 항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기생충, 헛 족속, 이스라엘 족속. 음, 히브리어에는 그런 항목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70인역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ites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sigla I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가나안 사람이거나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예요. 그래서, 또는 이스라엘의 자손인 브나이 이스라엘(B'nai Israel).

히브리인은 실제로 Ivri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14장 13절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지 코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살이었을 때 우리는 이제 이것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모든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에 대한 10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찾는 것과 같은. 더 많은 정보를 찾을수록 더 많은 가능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할 때 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비교적 유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에벨이라는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10장 24절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모음만 다르고 에벨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모음에 따라 철자가 조금 다르지만 히브리어의 어근 자음은 동일합니다.

즉, 이들이 공유하는 동일한 어근자음이 이 거친 호흡 기호인 B와 R입니다. 이 두 자음이 공유하는 세 자음입니다. Evri와 Eber는 세 개의 자음을 공유합니다.

모음과 다르게 철자를 사용하지만 세 개의 자음을 공유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영어 학습 성경에 가보면 현재 20~30가지의 다른 영어 학습 성경이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 중 하나는 그가 에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각서에 언급한 에벨은 셀락의 아들, 아르박삿의 아들, 셈의 아들, 벨렉의 아버지, 르우의 할아버지, 스룩의 증조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을 낳았습니다. 글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문단에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조상에 관한 문단에서 나는 그것을 읽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에벨은 아브라함이 불려질 만큼 의미심장한 일을 했습니까?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에베리인이었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에벨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질문을 멈추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온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혼란스럽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저를 멈춰주세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여기에 있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그만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에베리 사람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베리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이름 목록에서 에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셈이 에벨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셈족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펠렉이라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에벨이 누구이기에 그를 에베리 사람이라 일컬어야 합니까? 따라서 이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질문은 '에버는 누구인가?'입니다. 둘째, 왜 정관사인가요? 이제

히브리어와 영어는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언어 모두 아주 사소한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고유명사에는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페그입니다.

나는 그녀가 Peg이기 때문에 "The Peg"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어에서는 고유명사에 정관사를 붙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라 이름이든 개인 이름이든 고유명사에는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거 이전에 도널드라고 불렀던 대통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그는 내 평생 들어본 사람 중 이름 앞에 정관사를 붙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히브리어가 고유명사인 데 왜 앞에 정관사가 있나요? 이는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 불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조상으로서 에벨을 설명하는 데에는 이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이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그가 에베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벨은 누구였으며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에벨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둘째, 왜 정관사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에벨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것이 성경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한 첫 번째 설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내용을 지우고 이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학자 윌리엄 올브라이트(William Albright)는 한 세대 반 전에 히브리어라는 단어가 당나귀 물이꾼으로 번역된 아카드어 어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할리우드가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보다 서부극을 더 많이 제작했던 내가 살았던 시대에 자란 아브라함은 노새 스키너였습니다.

요즘은 제가 교실에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학생들이 몰스키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노새 스키너는 당나귀를 사용하여 물건을 운반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은 당나귀 운전사였습니다.

글쎄, 이것은 흥미로운 제안이었지만 올브라이트는 아무도 그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은 올브라이트가 채택한 곳 어디에서나 인쇄물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올브라이트의 제안을 채택한 곳이지만 그가 제안한 내용은 아브라함이 서부에 왔을 때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당나귀 운전사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매우 많은 수의 당나귀를 가지고 있었고 더 크지는 않더라도 수백 마리에 달했을 이 당나귀가 그의 움직임을 특징지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이 왜 당나귀 물이꾼이라고 불렸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음 세대는 모두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는가에 대한 올바른 설명임을 시사하는 증거는 실제로 없습니다. 이 이름이 단지 아브라함이 많은 수의 당나귀를 고용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면 왜 붙였을까요? 세 번째 견해는 동사의 의미에서 도출된 견해인데, 내 생각에는 이 견해가 가장 좋은 대답인 것 같다.

히브리어에서는 이론적으로 모든 어근, 히브리어의 모든 어근 단어에는 세 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자음이 3개 이상이거나 자음이 3개 미만인 경우 외래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브리어는 수학적으로 외래어가 아닌 이상 모든 단어에 자음이 3개 있는 언어입니다.

자, 이 세 개의 자음은 쉼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거친 호흡 표시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ch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의 이 세 자음은 건너다, 건너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이라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건너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을 볼 때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카론과 가까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의 믿음을 발견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은 그가 믿을 믿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고국을 떠나 말 그대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분은 수백 마일을 건너셨지만, 또한 여러 강을 건너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발락 강을 건넜고, 여기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 그대로 고국을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히브리어의 정관사가 H로 표기되기 때문에 정관사가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Ivri라고 철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Ha-ivri이고 Ha-ivri는 제가 히브리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온.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히브리인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국을 떠나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4장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본질적으로 건너간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설명인 것 같다. 이제 저는 이것에 대해 다수의 견해를 대변할 수도 있고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더 빨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일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에브리인이라고 하고, 둘은 건너가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한 당신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자, 아마도 당신은 그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다지 혼란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공동체 의식을 느낍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지만 이제 나는 토론을 계속할 것이며 내가 기독교에서 유래한 전통에 따라 설교를



그만두고 간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 하비루(Habiru)라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 훨씬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하비루(Habiru) 용어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매우 유사해 보이는 두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단어는 하비루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질문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어볼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두 단어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일부 복음주의 학자들의 제안이 대중적인 제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비루(Habiru)와 히브리어는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고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비루였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비루는 누구인가? 이 테이프를 위해 할당한 시간 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이 논의가 다음 테이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카메라맨이 언제 이걸 놓아야 할지 말해 줄 겁니다. 하비루(Habiru)는 아카드어 단어로,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정치적 현상, 지정학적 현상을 뜻합니다. 오른쪽? 그렇다면 왜 복음주의자들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할까요? 그 이유는 대략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던 시기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편지에는 팔레스타인의 여러 왕국이 이집트 왕에게 하비루가 있다고 말하는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서 군대를 보내라.

좋아요? 그냥 이렇게 놔두자. 그러니까 1370년경부터 앞으로 20여년 동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실제로 예루살렘 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부스라고 불렸지만 예루살렘 왕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하비루가 오고 있다고 편지를 써서 군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 학자들은 하비루와 히브리어가 동일한

것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히브리인들이 그 땅으로 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땅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왕들이 하비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 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상호작용이 아닌 강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얼굴을 그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물음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카드어 단어인 하비루(Habiru)를 살펴보고 그 단어가 아카드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비루와 히브리어가 같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치를 누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가 우리 논의를 잠시 멈추기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할 일은 하비루의 아카드어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이해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복의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정복의 증거가 없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곳이 우리 토론을 잠시 멈추기에 좋은 곳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12부 종족, 후리족, 헷족, 하비루족입니다.